

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

(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 황보환 사무관, 044-215-7381)

I. 추진 배경

- 그간의 관 주도 및 재정일변도의 단발적·소규모 나눠주기식 지역투자 방식으로는 지역활성화 및 수도권-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에 한계
⇒ 실제 “일자리”와 “사람”이 모이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필요

II. 정책 내용

- (개요) 지역이 원하는 대규모 융·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자금·역량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「지역활성화 투자 펀드」가 금년 신규 출범
* 지역활성화 만을 목적으로 한 최초의 정책펀드
 - 금년 3,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였으며, 최소 3조원 규모 (10배 레버리지)의 지역투자 효과 기대
- (특징) 실질적인 지역활성화 효과를 위한 내실있는 펀드 구조
 - (대상 프로젝트) 어떠한 유형의 프로젝트도 규모의 제한없이 가능
 - (투자 인센티브) 모펀드의 마중물(위험분담) 역할,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제외,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용 대출 특례보증과 더불어
 - 재정투자심사 간소화·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, 신속 인·허가,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현재까지 총 3건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1조 6,734억원 지역투자 확정
 - * (충북 단양) 단양역 체류형 관광시설(1,133억원, 관광)
 - (경북 구미)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(1,239억원, 산업단지)
 - (전남 여수) 묘도 LNG 터미널(1조 4,362억원, 에너지)
- 금년말까지 추가 프로젝트들이 선정되어 금년 모펀드 3,000억원 전액 소진(모펀드의 투자기간은 2년이나, 1년만에 조기 소진) 전망
- 도입 취지대로 관광·산업단지·에너지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이 1조원이 넘는 등 규모 제한없이 추진 중이며
 -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과 협업하여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가 발굴 가능함을 증명
 - * 충북 단양은 인구감소지역이며, 전남 여수 또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